

'89년 체신부 주요 업무 계획

崔 永 喆
(체신부 장관)

■ 차 례 ■	
1. 머 리 말 2. 주요업무 계획 내용 가. 통신환경의 변화와 적응능력 향상 나. 복지통신 확대로 국민편익 제고 다. 첨단기술의 고도화로 정보화사회 촉진	라. 정보 문화 확산사업의 적극 추진 마.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의 촉진 3. 맺 음 말

[1] 머릿말

80년대를 마무리 하고 90년대를 준비하는 89년의 우리나라 전기통신시장은 통신공사의 민영화와 미국의 통신시장의 개방압력 등으로 인해 시간의 예상을 훨씬 넘어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독점적 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전기통신 시설의 공급과 서비스의 개발에 커다란 공헌을 해온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올해에 주식을 공개하여 경영체제가 바뀌게 되므로 그에 따른 새로운 통신시장의 질서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누증하고 있는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미국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통신장비 및 서비스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미 종합통상법에 통신분야를 신설하여, 우리나라를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통신시장은 미국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80년대 들어 정부는 통신시설 현대화에 박차를 가한 결과 통신의 양적 공급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양적확대를 지속하는 한편 90년대에는 음성정보 뿐 아니라 각종의 새로운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통신 서비스와 질적인 향상에 통신정책이 중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신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올해의 체신부 업무계획은 통신공사 민영화에 부응하는 통신사업자의 자율경영체제 구축 및 공공성 확보방안의 마련과 통신환경을 보강하여 대외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1980년대 통신발전의 성과를 일반국민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복지통신의 확대를 추진하며, 통신시설 및 서비스의 선진화와 첨단기술의 자립화로 정보화 사회를 촉진시키며, 국민의 정보화사회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미래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문화 확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가 선진화를 위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2] 주요업무계획 내용

가. 통신환경의 변화와 적응능력 향상

올해의 통신시장 환경변화를 몇가지 간추려 보면

첫번째는 통신공사의 민영화 추진이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민간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명실상부한 국민기업으로서 전기통신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금년하반기부터 정부주식의 49%를 국민주 형태로 4년간 분할 매각할 예정이다. 우리부는 통신공사를 비롯한 산업체, 학계, 연구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공청회개최 등 국민여론여과과정을 거쳐 국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통신공사 민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통신공사 민영화에 필요한 국민주매각규모와 매각방법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나, 금년중에는 15% 정도를 국민주형태로 매각할 것이다. 관련법규 개정은 기존의 공사법을 주식회사법으로 개정하고, 정관과 약관을 정비하는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수행중이다.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의 경영방식이 독점공영형태에서 민간회사 형태로 전환됨으로써 국가독점을 유지해 오던 전기통신사업에 경쟁원리가 도입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김에 따라 경쟁체제 도입의 득실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와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두번째는 미국에 의한 우리의 통신시장 대외개방 요구이다.

미국은 지난 2월 우리나라를 통신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하였으며, 미국이 우리나라를 우선협상국가로 지정한 사유로는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실익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통신시장 개방을 모델케이스로 하여 EC국가 등 선진국들의 통신시장과 개도국의 통신시장을 동시에 조기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정에 따른 협상기간은 우선 1년이고 1년씩 2회 연장할 수 있으나 협상을 통하여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적절한 대응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므로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의연한 자세로 신축성 있게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요구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체신부에 전달대책

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주미대사관에는 통신협력관을 파견하여 현지의 정보를 파악하고 외교채널을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국제화, 전문화에 대비한 우리의 적응능력 향상이다.

오늘날 전기통신시장의 국제화는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제활동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국제 통신기구의 활동과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지위향상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와 국내 통신사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잠재적 통신수요가 풍부하고 지원효과가 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통신망계획, 설계, 통신기자재의 설치 운용 등 기술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한국통신기술(주) 등의 전문가들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유지보수요원의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대북방정책의 진전에 따라 동구와의 통신소통을 지원할 것이며 북한이 희망할 경우 우리나라의 선진 통신기술과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나. 복지통신확대로 국민편익 제고

정보이용의 대중화 촉진을 위한 합리적인 요금체제를 구축하고 종래 공급자 중심의 규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정을 과감히 개선 보완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요금의 산정기준과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선용회선 요금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시내·외의 전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가입전화 시내시분제를 시행하여 이용량에 따른 과금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신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전화, 데이터통신, 텔렉스 사용 요금 등의 인하와 농어촌지역과 심신장애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전화요금을 할인하여 시민계층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복지통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통신의 이용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이용약관의 개정과 가입계약의 청약 등 민원처리가 전화, 우편에 의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통화정지처분 실행기간 연장과 전화해지시의 설치비 상환절차

간소화, 전화사용 내역통보서비스제도 등을 도입하여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 금년에 185만회선의 전자식 교환시설을 공급할 것이며, 이 시설이 끝나는 금년말에는 100인당 전화보급율이 27.6대로 늘어나게 된다. 금년중에 32,000대의 공중전화를 놓어촌이나 전화보급이 상대적으로 뒤져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중점공급하여 전화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도시 중심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무선호출서비스와 차량전화를 지방도시와 그 주변 지역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전송망의 현대화를 위해 57Km의 광관로와 419Km의 광케이블을 시설하고 육지-제주간 172Km의 해저케이블이 12월에 개통되며, 육지-울릉간의 해저 광케이블 건설 타당성조사를 금년에 마치게 된다.

새로운 통신서비스면에서는 원격지의 중앙검침센터에서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전기·수도·가스 등의 계량기를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 자동검침 서비스를 서울, 대구, 구미 지역에서 상용시험을 실시하는 한편, 1990년도부터의 상용화서비스에 대비하여 표준규격과 이용조건 및 요금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농수산물과 축산물의 시세, 증권정보, 직업안내정보 등 생활정보를 검색하여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종합음성정보서비스를 서울,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시험 제공하고 열차, 비행기, 고속버스, 선박 등 이동체에 공중전화를 설치하여 일반전화 가입자나 차량전화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며, 국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선방송서비스의 활성화도 도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부문에서도 일반 국민의 다양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여 고해상도가 요구되는 문서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고속팩스(Group4 Fax)에 의한 고속문서전송서비스, 서로 다른 전자사서함간의 메시지 전송과 개인용컴퓨터(Personal Computer), 텔리타이프(Teletype), 팩시밀리 등 각종 서로 다른 통신매체

간에 메시지전송이 가능하도록 중간에서 통신방법, 형식 등을 조정해 주는 MHS(Message Handling Service)와 디지털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 첨단기술의 고도화로 정보화사회 촉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통신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개발을 지원하며 기업연구소 연구능력향상과 자립화 달성을 위해 국책연구소와 공동연구를 강화하여 기반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금년에는 약 900억원의 기술개발비를 투입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등과 공동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중점개발분야는 대용량 전자교환기, 반도체 ISDN 기술, 행정전산망 주전산기개발 등이다.

국산전자교환기는 지난 85년에 10,000가입자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TDX-1A가 개발되어 놓어촌에 공급중에 있으며 20,000회선급 전자교환기인 TDX-1B는 지난 1월 10일 성황리에 개발발표회를 가진 바가 있으며, 금년에 36만8천회선이 중소도시지역 중심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100,000 회선규모의 대용량 전자교환기(TDX-10)는 91년 상용화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TDX-10 실용시제품에 대한 실용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도체 개발에 있어서도 4M DRAM을 88년에 개발성공한데 이어 상공부, 과기처와 합동으로 초고집적반도체인 16/64M DRAM 개발에 착수하여 금년에 16M DRAM의 개발공정 기술개발 및 시제품 설계가 완료되고, 90년에는 16M DRAM의 개발 및 64M DRAM 개별공정 기술개발과 시제품 설계가 완료되어 92년에는 64M DRAM 시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ISDN 기술은 91년까지 협대역 ISDN, 96년까지 중대역 ISDN, 2000년까지 광대역 ISDN 개발을 목표로 진행중이며, 금년에는 단말기, 접속장비 등 소요기술을 확보하고 TDX-1A 교환기를 이용한 시험망을 구축하여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산컴퓨터 개발계획은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국산화방침에 따라 도입기종을 기반으로 독자기종을 개발하고 나아가서는 해외진출을 고려한 목표기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360억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며 금년에는 독자기종의 기본시제품을 제작하게 될 것이다. 또한 90년대 후반 통신방송위성 확보를 목표로 종합 추진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라. 정보문화 확산사업의 적극 추진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는 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조기 실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한편, 전체 국민이 정보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정보기기를 일상생활에 활용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정보화가 정착되게 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지난해는 정보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선도 조직의 형성, "정보문화의 달" 설정과 각종 홍보·계몽행사의 추진을 통하여 정보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씨를 뿌린 해이다.

금년은 정보문화 확산사업 제2차년도에 맞아 사업 수행의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민간주도의 문화운동으로 정착하여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국민의 정보이용능력을 높이고 정보기기산업과 정보처리산업의 육성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정보통신단말기 1,000만대 보급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러한 1,000만대 보급계획의 일환으로 89년에서 96년에 걸쳐 전국 6,136개 국민학교에 학교당 교사용 1대 학생용 30대의 컴퓨터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4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기종과 보급순위, 보급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다.

또한 컴퓨터 등의 정보기기와 통신기기 등을 전시하여 그 작동 원리 및 이용방법을 시범하며, 관람자가 이들 기기를 직접 조작·실습할 수 있도록 각종 시범, 전시, 실습장의 설치·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것이다.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에 어린이대공원내에 전기통신홍보관, 강남구 삼성동에 정보문화홍보관

을 각각 개관한데 이어 1992년도까지 전국 주요도시에 8개소의 전기통신홍보관을 건립하고, 충남 천원군의 독립기념관 경내에 전기통신 미래관을 건립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보화사회의 밝은 미래상을 보여주고, 혁신적인 전기통신기술의 교육·홍보를 통하여 미래 정보화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함양시켜 나갈 계획이다.

마.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촉진

국가선진화의 전략적 수단으로서 90년대 중반까지 5대 기간전산망을 구축하고 2000년대 초까지 통합된 단일 기간전산망 구성을 위해 국가전산망 구축사업의 제도적, 기술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개발을 위해 89년 6월말까지 도입기술의 운영체제(OS)를 안정화 하고, 금년말까지는 독자기종의 기본시제품을 제작하며 해외진출을 고려한 목표기종의 개발방침을 수립하여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전산망용 통신회선을 적기에 공급하고 행정전산망 추진사업 소요자금(1989년 1,200억원)을 조달, 지원할 것이며,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을 강구하고, 전산망 관련 법령체제를 정비하여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통신방식이 서로 다른 컴퓨터간의 연동성, 호환성을 확보하여 전산망 서비스의 보급을 촉진하고, 국내 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산망 표준화를 추진하여 나가고자 한다. 전산망표준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민간주도로 장기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추진되는데, 금년에는 표준화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개방형 통신프로토콜표준과 MHS 기술표준안을 작성하게 된다.

3 맺음말

정보화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필수 기반구조인 통신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체신부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우리 체신부도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요업무계획은 그해에 정부에서 추진할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약속하는 사항이므로, 체신부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관련산업계, 학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무계획 달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업무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하더라도 체신부가 해야될 일에 대해서는 지속적

으로 일을 찾아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정보화사회를 촉진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업무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체신부의 노력 못지 않게 통신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조언이 필요하므로 통신관련 단체와 학계, 특히 통신학회 회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기대한다.



崔 永 喆

- 1986. 12 : 대통령특사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 1987. 1 : 중남미 의원 친선 방문 단장
- 1987~1987 : 여야 8인 정치회담 대표
- 1987~1988 : 민주정의당 전남도 지부장겸 중집위원장.
- 1988~1988 : 민주정의당 국책평가위원회 위원장
- 1988. 12~현재 : 체신부 장관

저자약력

- 1954 - 1958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12회)
- 1958~1962 : 한국일보, 민국일보 기자
- 1962~1971 : 동아일보기자, 정치부장, 외신부장
- 1968~1969 : 미 콜롬비아대학교 신문대학원
- 1971~1973 : 정무담당 무임소 장관실 정무조정실장
- 1973~1988 : 국회의원 (9대, 10대, 11대, 12대)
- 1973~1980 : 한일의원연맹 및 친선협회 상임간사
- 1974. 10 : 제61회 IPU(국제의회연맹) 한국대표
- 1979~1980 : 민주공화당 원내 부총무, 대변인
- 1981~1981 : 민주정의당 창당 15인 준비위원
- 1981~1983 : 국회 보사위원회 위원장
- 1983 - 1985 : 민주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1985~1987 : 국회 부의장
- 1986. 9 : 구주 및 아프리카 의원 친선방문 단장
- 1986~1988 : 한국·노르웨이 의원 친선협회장